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①6

近於故人處 得五位修證圖
근어고인처 득오위수증도
乃建州大中寺講學沙門永年 排定
내건주대중사강학사문영년 배정

지지 하득남종 유등문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그림 가운데
진·점의 구체적 내용을 서로 뒤섞이

但學教學禪之者 雖遇妙旨 高推聖境
단학교학선지자 수우유지 고추성경
단학교학선지자 수우유지 고추성경

나날이 쓰고 보고 깨닫는
마음의 성품이 바로 큰 해탈

그 서문에 '위없는 지혜는 아승지감을
두고 오위(五位)의 수행과 육바라밀이
원만해야 증득한다. 그러나 지금은 돈

雖不藉三乘漸次行位
수불자삼승점차행위
亦不礙悟後圓修行門 如是悟修本末

如是辨明 至於圖中 排定頓漸行相
어시변명 지어도중 배정돈점행상
亦不相離 所以然者 以其家生根機

雖不藉三乘漸次行位
수불자삼승점차행위
亦不礙悟後圓修行門 如是悟修本末

봉인사 오시는 길
봉인사 겨울 수련 안내
1월 16일(화) ~ 22일(일) 6박7박
2월 12일(월) ~ 22일 18일(일) 6박7일

가까이서 뵈 큰스님

지유스님

범어사 조실

“공부, 자기모습 제대로 보기”

“어떻게 오셨어요?”
“스님 뵈러 왔습니다.”
“잘 보고 가시오. 허허”
뭐라고 답할 수 있던 말인가? 스님은 분명



△7일 원효암의 법회 후 방문으로 찾아온 신도들에게 자상하게 마음 공부법을 알려주시는 지유스님.

“차 한잔에 전체가 들어 있어요. 차 한잔
속에 불성이 다 들어 있다는 말이죠. 마음을
깨닫는 성품을 어디 먼 곳에서 구할게 아니

마음은 거울과 같아
갈등과 욕심과 감정
실체 그대로 비춰

“놓지 않는다는 생각에 매이는 순간 그것
은 진정한 장파불과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진다. 굳이 특별한 법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인연있는 사람은 찾아와서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스님의 믿음대로 원효암에는 많은

고 물. 파도 또한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
을 했다.
“물과 파도는 하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1월 16일(화) ~ 22일(일) 6박7박
2월 12일(월) ~ 22일 18일(일) 6박7일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감정중
‘金檀花’
“에 공을 통해로 삼키느냐, 한번 보
세요. 옆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현대결혼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불자님 은혜 진심으로